



기독교 직장인

2026년 가을호 통권 325호



진주교신학대학교구 직장시목팀



기독교 직장인

2026년 가을호 통권 325호



표지설명 | Invitation on the Move: Diocese of Lichinga, Mozambique
(Jan. 15-22, 2026) 찾아가는 초대 - 모잠비크 리칭가 교구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WYD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World Youth Day Seoul 2027
Local Organizing Committee, All rights reserved.

- 사목일기** 04 1초보다 긴 시간 김명중 시몬
34 평화를 빕니다 김도훈 라파엘
40 시간이 흐른다는 착각 강혁준 아우구스티노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03 WYD 상상 속의 첫날 이야기
14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오랑 이진수 라파엘
18 서울 세계청년대회기간 본당위원회(P.O.C.) 운영 세부 지침

- 가톨릭이야기** 06 1980년대 성심당의 르네상스, 위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김미진 아녜스
수도회이야기 10 하느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삶 전성심 마리아 헬레나
교리 산책 24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례가 필요합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병원단상 51 죽음을 보다보니 내 삶이 보인다 황광우 요셉
교정단상 36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 나의 일터, 나의 신앙** 28 나의 출근길을 함께하시는 성모님 지은정 베로니카
54 주님의 사랑을 구정에 녹여내는, 양천구청 천주교우회를 소개합니다 이미숙 카타리나

- 복음 묵상** 32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 (마태 13, 11) 김종호 야고보
58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 (마태 13, 29-30) 김종호 야고보

- 직장인 성지 Guide** 26 왕림성당 윤정민 마틸다
38 요당리 성지 윤정민 마틸다
해외 성지 Guide 44 멕시코 과달루페 심연선 소화데레사

- 60 틀린그림 찾기
62 News & Views

4-1 WYD 첫날 이야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때 **가상의 본당**을 설정하여
주임 신부님 시점에서 순례자 인원 배정과 시설을
운영해 보는 시뮬레이션 내용을 소개합니다!





1초보다 긴 시간

김명중 시몬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얼마 전 한 본당에서 장수사진을 찍어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마치 소풍 전날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주일 아침 성당 로비에 모여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으신 할아버지, 가슴에 보조기구를 착용하신 분,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오신 분, 장롱 깊숙이 간직해 둔 한복을 조심스레 꺼내 입으신 할머니까지... 저마다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마지막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남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자매님들이 깔깔 웃으며 서로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하고 여쭙었습니다. “제미니 인공지능이요.”

사진 한 장을 불러와 “프랑스에서 찍은 것처럼 해줘.”, “그리스 바닷가로 바꿔줘.”, “웨딩드레스를 입혀줘.” 하고 명령을 내리면 순식간에 멋진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과가 나타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초. 모두가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인터넷도 끊임없이 속도를 높여 갑니다. 우리는 어느새 ‘빠른 것’이 곧 ‘좋은 것’이라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셔터가 ‘찰칵’ 하고 눌리는 시간도 역시 1초였습니다. 그러나 그 1초는 전혀 다른 밀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은



어르신 손을 잡아드리고, 천천히 걸음을 맞추어 드리고, 의자에 편안히 앉혀 드리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드리고, 긴장을 풀어드리며 미소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셔터는 1초였지만, 그 1초를 위해 우리는 5분을 함께 걸었습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와 효율을 말하지만, 사랑은 속도로 측정되지도 효율로 계산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머물러 주고, 기다려 주고, 함께 걸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해 걷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고 있는가. 그것이 사랑의 가치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그리고 이웃에게 향하는 사랑. 신앙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년 여름 세계청년대회(WYD)가 열릴

니다.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들이며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며 칠의 행사를 치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맞이하는 마음,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은 결코 속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긴 기다림과 정성, 서로를 향한 사랑이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품으시며, 오래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사랑, 그뿐입니다. ⊕

1980년대 성심당의 르네상스, 위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20)

김미진 아네스_성심당

1982년, 성심당 대표 임영진 요셉과 결혼하여 성심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브랜딩, 홍보기획, 디자인, 빵 작명, 인테리어 기타등등 빵 만드는 일 빼고 모든 것을 다하는 성심당 빵마담입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찾아와 긴 줄을 서는 성
심당이지만, 1980년대는 대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빵집으로 자리매김한 성심당의
첫 번째 르네상스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어린이날 행사, 크리스마스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부활절까지,
특별한 날이면 대전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성심당을 찾았습니다





성심당의 전성기를 이끌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 빵, 튀김소보로



성심당 본점 1992년 확장이전 - 국내 최초 베이커리 레스토랑 오픈 (1F 성심당, 2F 테라스키친, B1 카페 드 사크레케아)

남편 임영진 요셉은 대학생 때부터, 공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에도 틈틈이 성심당 일을 도왔습니다. 1981년 전역 후 본격적으로 가업을 이어받은 그는, 아버지가 물려준 나눔의 철학 위에 차별화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여러 시도와 도전을 했습니다. 1980년 튀김소보로를 시작으로 생크림케익과 전국 최초 포장빙수를 개발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성심당의 전설 같은 제품들은 모두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저는 요셉과 결혼하면서 성심당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려 빵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설날, 추석, 대보름, 부활절 그리고 학력고사 등... 삶의 소중한 순간

들을 빵과 연결시켰습니다. 빵집의 이벤트가 낯설던 시절, 저희는 빵과 함께하는 기쁜 날을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착한 신자의 빵집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했을 때, 포콜라레 운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마태 18,20) 라는 복음 말씀처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며 일치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점차 성장한 성심당은 확장 이전하며 전국 최초 ‘베이커리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비롯한 유럽의 빵들을 배우고 접하며 새롭고 즐거운 빵의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스레 매출로 이어져 성심당은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승승장구하던 성심당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도심은 점차 비어갔고, 사람들은 아파트 앞 프랜차이즈 빵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로 경기는 크게 위축되었고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동생이 운영하던 프랜차이즈가 부도를 맞으면서 시민들의 성심당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을 이어가며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는 창업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설상가상, 성심당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오는 중 성심당에 불이 났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다, 다시 성당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성당에서 감실을 향해 '주님 당신만이 유일한 나의 행복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업 50주년을 한 해 앞둔 시점에서 이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여기가 끝인가요?' 그러나 저는 다시

2006년 10월 성심당 50주년 기념행사. 매장 앞 골목에서 10m 길이의 초대형 케익을 설치하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답했습니다. ‘그동안 즐겁고 신나게 일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결과라도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맡겨드리자, 마음이 차분하고 가벼워졌습니다.

“젯터미 속의 우리 회사, 우리가 일으켜 세우자!”

화재 다음날 저는 춥고 축축한 현장을 바라보며,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느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만들어 걸고 성심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먼저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하느님과 함께 넘어서겠다는 마음으로 화재복구 프로젝트명을 ‘PASS OVER’로 정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공장의 검게 그을린 벽을 닦아내고 중고 기계를 들여온 지 단 6일 만에 앙꼬빵, 소보로 등 몇 가지의 빵이 나왔습니다. 그 빵을 보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 화재를 극복하면서 성심당에는 한가족 문화가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05년 성심당 화재 후 불탄 빵공장(위)
화재 이후 새롭게 문을 연 성심당. 부자가 외도 초라하지 않고
가난한 이가 와도 주눅 들지 않는 ‘가정’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매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아래)

“함께한 50년, 함께 할 50년”

이듬해, 성심당은 창업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화재 속에서도 성심당을 지켜준 성심인들과 끝까지 지지해준 대전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젯터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성심당은 빵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일터 안에서 모든 이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

하느님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삶

전성심 마리아 헬레나 수녀_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



지금 저희 수녀회는 수녀님들의 고령화와 환자 수녀님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새로운 공간 조정을 위해 건물 공사가 시작된 지 몇 개월 되어갑니다.

유난히도 공사 소리가 성당 안까지 울려 우리 집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기도 방해되는 소음처럼 불편하게 여겨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땀으로 노동하는 이들의 수고를 뒤로하고 성체 앞에 머물러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터 한가운데서 이와 비슷한 소리를 들으며 불편함이 아닌 불안함으로 매일을 숨

죽인 채 살아가는 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격 소리와 총성, 무너지는 건물 소리 속에서도 하느님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이 지금 제 안에 자리한 불편함이 얼마나 사소하고 안일한 것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평화로운 성당에서 성체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거저 주어진 은총에 대해 얼마나 자주 감사드리며 살아왔었는지...이내 불편함은 사라지고 지금 고통받고 힘겨운 이들을 향해 마음을 돌려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의 좁은 생각과 시선은 눈앞의 소음에 머무르게 하나 하느님의 시선은 그 소리 너머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비추어 주십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넘어 누

군가의 아픔을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상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군중은 세리의 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갈망을 보셨고, 사람들은 병자의 아픈 몸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멈추지만, 들여다보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사

연과 마음, 그리고 하느님께서 심어 두신 선함을 발견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선으로 수녀원의 작은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평범해 보일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심어놓으신 달란트들을 발견합니다.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다’하여 우리 집 마련을 위해 두손 걸어붙여 수제 쿠키를 굽고, 수세미도 뜨고, 정성 들여 비누도 만들고, 피클과 레몬청을 담그는 일에 즐거움을 더합니다. 세상에 견줄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





일 수도, 사람의 시선으로는 작고 소박한
것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시선은 달란트의 크
기보다 그것을 내어놓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서툴더라도 정
성을 담아 만들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
는 마음으로 나누며, 그 결실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신다
는 것을 깨닫는 요즘, 우리가 만드는 작은



작품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봅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내놓은 한 달란트 역시 어디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애쓴 만큼의 결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충실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시선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도록, 단정하기보다 공감하도록, 겉모습보다 마음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크고 화려한 일을 찾기보다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작은 달란트를 충실히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일만 처리하기에도 벅차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를 놓치기 쉽습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하느님의 시선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보이지 않던 고통을 기억하게 하며, 당연하게 여기던 은총에 감사하게 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작은 한 달란트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도 합니다.

들여다보는 힘이 빠지기 쉬운 여름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볼 수 있기를...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참모습을 보이줄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작은 달란트를 기쁘게 내어놓으며, 그 열매를 하느님의 섭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살아가시길 언제나 성체 앞에서 기도합니다. ⊕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2027 서울 WYD 수퍼클래스를 준비하며

이전수 라파엘_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퍼클래스팀 팀장

2024년 12월, 저는 봉사자 양성 교육을 받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를 준비하는 여러 봉사자 팀들 가운데 전략팀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양성을 무사히 마친 모든 봉사자들은 배치를 희망하는 팀들을 적어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디 구석에서 조용히 봉사를 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큰 역할이 없을 것처럼 몇 가지 팀을 희망한다고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배치 결과는 제 희망과 전혀 다른 전략팀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일터에서 어떤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해봤어야 알지, 이제까지 공부만 해온 제가 배치받은 전략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 1월에 첫 모임을 하면서 보니, 전략팀은 동반하여 주시는 신부님들을 제외하면 팀 봉사자만 40명 가까이

이르는 매우 큰 팀이었습니다.

본대회가 열리는 2027년까지 대략 2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봉사자들은 사전 준비 단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해야 했고, 전략팀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 크게 3~4개의 굵직한 행사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치러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양질의 강연회를 준비하여 WYD에 관심이 있는 청년 신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제공하는 ‘WYD 수퍼클래스’였습니다. 저는 의정부교구 동북아 평화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국제회의의 기획에 참여하고 치러낸 경험이 있었지만, 첫 모임 당시에도 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한 국제행사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낸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간 내 인생을 상당히 고달프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직장과 교회에서의 봉사를 겸하고 있는 청년 신자들이라면 정말 공감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만 마련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란 점을 간파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저는 팀장으로 선출되었고, 2025년 9월부터 시작되어 본대회 직전인 2027년 7월까지 이어지는 수퍼클래스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전략팀 안에서 수퍼클래스 준비를 희망하는 봉사자들이 소그룹처럼 나뉘어졌고, 초기에는 3~4명의 팀 봉사자들 그리고

동반 신부님과 함께 얼마의 간격으로 강연회를 준비할 것인지, 매 회차 어떤 주제로 어떤 강연자를 섭외할 것이며 그 강연회를 통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사전 준비 단계에서의 이 행사를 본대회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유명인을 강연자로 우선 섭외하는 것은 본대회 바로 직전까지 연달아 이어지는 이 대장정에 의외로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 WYD를 준비하고 있는 봉사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며 동시에 본대회에서 구현해야 하는 세 가지의 영성적 가치(진

수퍼클래스_봉사자들





리, 평화, 사랑)를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식별하고 그에 맞는 강연자를 찾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첫 수퍼클래스의 강연자는 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서 윤리 신학을 가르치는 방중우 신부님으로 결정이 되었고, 때마침 인공지능과 관련한 그리스도교 윤리를 이야기 해주시기로 하였기에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강연자 초청이었습니다.

수퍼클래스를 팀 봉사자와 함께 준비해 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모든 봉사자가 각자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 내내 서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교회 봉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수퍼클래

스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가볍고 기쁜 마음이어야 봉사를 하더라도 힘이 나고 즐겁지, 이 준비과정 마음 한 칸에 계속 남아서 떨어지지 않는 부담으로 남는다면 결국 봉사자로서 더 이상 조직위원회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사제나 수도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사회와 교회 안에서 삶과 신앙의 교차점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봉사자로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네 일도 바쁠 텐데, 그것까지 가능해?”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

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삶과 신앙에서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애초부터 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이유는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참가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리스본 대회에서 보고 느낀 점은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보편교회 속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이란 감각이었습니다. 이는 곧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된 경험이기도 합니다. 본당에서든, 교구에서든 어떤 직분을 맡아서 평신도로서 사도직에 참여하다 보면 보편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원을 감각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갈등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이런 감각은 더더욱 머나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점에서 리스본 대회에 참가한 경험은 2027년에 다가올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봉사자로 참여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수퍼클래스를 준비하는 수퍼클래스팀은 내년에 있을 본대회에서 그리스도교 교파간 일치를 위한 활동(예큐메니컬 활동)도 맡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한국 사회는

다종교 사회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에 속한 이웃교회들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비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세계청년대회인 만큼, 수퍼클래스팀의 예큐메니컬 활동은 비 그리스도교 문화권인 다종교 사회에서 다양한 그리스도교 이웃 교회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 지으면서 문득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루카 24,29-35 참조).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Bleibet bei uns, denn es will Abend werden (우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저녁이 깊었습니다, BWV6)”가 바로 이 장면을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성가 504번 역시 이 장면을 노래합니다.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둘러 앉아 빵을 나눕시다.” 주일미사에서 성체 성가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성가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폐막 미사를 마칠 때까지 저는 루카 복음의 이 장면과 저 노래들을 계속 바라보고 흥얼거리며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 세계청년대회기간 본당위원회(P.O.C.) 운영 세부 지침



세계청년대회 본대회 일정표

8월 1일(일) ~ 8월 2일(월)	8월 3일(화)	8월 4일(수)	8월 5일(목)	8월 6일(금)	8월 7일(토)	8월 8일(일)
서울 이동 및 본대회 등록		교리 교육			순례자 밤샘기도 장소 이동	폐막 미사
	젊은이 축제(Youth Festival) 및 성소박람회					
	개막미사		교황님 환영행사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	

패키지 종류에 따라 순례팀의 숙소 입소일은 8월 1일(일)부터 2일(월)까지 나뉩니다. 상황에 따라 순례팀이 당일에 추가되거나 갑자기 인원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돌발 상황의 경우에는 이어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구위원회(F.O.C.)와 긴밀히 소통하여 상황에 맞게 응용 적용 하시면 됩니다.

본당에 머무는 순례자들이 일차적으로 체감하는 것은 시설의 편의성이지만, 가

장 깊은 기억으로 남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조금 낙후된 환경일지라도 낯선 나라의 봉사자가 건네는 밝은 미소와 인사, 아프고 힘들 때 가족처럼 염려해 주던 체험은 순례자들이 서울 WYD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본당 공동체가 순례자들을 단순히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 아니라 소중한 형제자매로 여기며, 인격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숙소 입소일

8월 1일(일) ~ 8월 2일(월)

서울 이동 및 본대회 등록

8월 3일(화)	8월 4일(수)	8월 5일(목)	8월 6일(금)	8월 7일(토)	8월 8일(일)
	교리 교육			순례자 밤샘기도 장소 이동	폐막 미사
젊은이 축제(Youth Festival) 및 성소박람회					
개막미사		교황님 환영행사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	

입소/소통/숙소 안내 → 본대회 순례자 등록 → 순례자 키트 배부
→ 환영 세리머니 및 오리엔테이션 → 식사

| 입소 · 소통 · 숙소 안내 |

- 숙박 예정 인원은 당일까지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지구위원회(F.O.C.)와 긴밀하게 조율하여 대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등록 절차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순례자만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 등록 확인과 절차에 대해서는 주후 안내). 입소 날 저녁 시간에 간단한 순례자 환영 세리머니와 함께 숙소 이용에 관한 전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는 ‘환영세리머니 맛오리엔테이션’을 참고(22쪽)해주시시오



- 순례자 그룹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담당 봉사자 배정 및 소통 방법을 미리 준비하시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용이합니다. 담당 봉사자가 해당 순례자 그룹의 언어(혹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해당 언어 가능 봉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카톡 인스타그램 DM 등, 영미/유럽권은 왓츠앱 추

천과 번역 기능을 활용하면 필수적인 소통은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담당 봉사자 연락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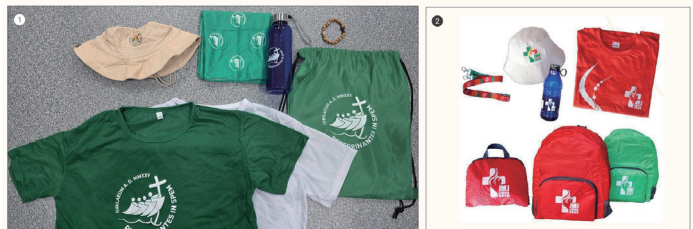
- 숙소 이용에 관한 안내는 저녁 환영 세리머니의 시간을 활용한 전체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진행 되지만, **순례자 그룹 대표에게 사전에 숙소 관련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입소 시간이 늦어 환영 세리머니에 참석하지 못하는 순례자 그룹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 남성/여성 숙소 표시, 화장실/샤워실, 숙소 개방 시간 등 순례자들의 숙소 이용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들은 곳곳에 **안내문 또는 표시를 부착해** 주시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반복되는 문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숙소 이용 수칙 전체 내용을 QR코드 부착을 통해 순례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당마다 다른 공간과 구조의 특수성에 따라 많은 인원의 순례자들이 숙박함으로써 인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 숙박 예상 인원 대비 콘센트가 부족한 경우 고용량 안전 멀티탭 준비 등).

| 본대회 순례자 등록 |

- 순례자들은 공식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통해 식사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충전식 선불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등록 방법은 모든 순례자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순례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본당 봉사자들이 등록 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도록 교육 부탁드립니다.
- 순례자 등록 시 대규모 인원 동시 접속으로 서버 움직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역/지구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순례자들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례자 키트 배부 |

- 순례자 키트는 물류 회사와 연계하여 신청한 인원수에 맞게 본당으로 사전 배송됩니다(과거 리스본 대회에서는 본대회 시작 일주일 전에 배송되었습니다). 키트 수량을 미리 파악하여 원활한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순례자 키트(① 2025년 젊은이들의 희 년, ② 2023년 리스본 WYD)

| 환영 세리머니 및 오리엔테이션 |

- 순례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서울대교구에 대한 첫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순례자들이 따뜻하게 환대받고 있음을 체험하도록, 또한 순례자들 당일 피로도를 고려하여 너무 길지 않은 간단한 환영 세리머니를 할 수 있습니다(예: 박수, 수박나눔, 웰컴드링크 등).
- 배정 인원이 많으면 한곳에 모이기 어렵고, 공동숙소(예: 학교, 체육관 등)로 배정받은 인원의 경우 직접 본당에 들르지 않고 바로 그 장소로 입소하므로 환영 세리머니는 숙소별로 진행합니다.
- 또한 이 시간을 활용하여 전체 순례자들에게 기본적인 숙소 오리엔테이션(본당 소개와 이용 수칙, 세탁물 건조와 멀티탭 사용, 개방과 통금 시간,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꼭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방 및 통금 시간과 관련한 내용은 ‘순례자 외출 규정과 숙소 관리 및 통제’를 참고(다음호)해 주십시오



①, ② 입소일 환영 세리머니 사례(2025년 젊은이들의 해년)

- 본당에 홈스테이 가정이 있는 경우 환영 세리머니 후에 자연스럽 게 담당 순례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해당 가정으로이동할 수 있 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식사 |

- 입소일에 석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본당의 경우 충전식 선불 카드를 사용하여 식사 가능한 인근 식당 정보라도 알려 주시는 것이 순례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 식당 지도를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 입소한 순례자들의 경우도 낯선 나라에서 식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봉사자들을 통해 친절한 관심과 적절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 순례자용 조식이 업체를 통하여 본당숙소와 공동숙소에 배송될 예정이므로 수량을 점검 부탁드립니다. 조식 배송과 관련된 내용은 차후 조직위원회(L.O.C.) 공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호에 계속) ⊕



조식 제공 사례(2023년 리스본 WYD)



조식 제공 사례(2025년 젊은이들의 회년)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례가 필요합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_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기도란 무엇인가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흔한 답은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하느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답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기도란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단단해지며 완성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바라는 바를 끊임없이 청하는데,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은

아니고, 기도의 초보 단계입니다. 기도는 내 말을 하느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린 후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기다리면 하느님께서 평화, 기쁨으로 다가오시고, 이때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게 기도란 마음을 들어 올리고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며, 시련이나 기쁨의 한 가운데에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외치는 일입니다.”(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녀)

이런 깊은 차원의 기도는 모두에게 가

능한 단계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 아직 기도가 익숙치 않으신 분은 지금처럼 하느님께 바라는 바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문을 외우는 염경기도와 묵주기도를 꾸준히 바치시고, 특히 그날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권장합니다.

개인이 하는 기도가 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기도, 즉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는 라틴어 ‘리투르기아’(Liturgia), 즉 ‘하느님 백성이 드리는 공적인 기도와 예배’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드리는 미사, 성사와 준성사, 성무일도(시간전례), 성체 강복 등이 전례입니다. 전례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드리는 예식이기에, 공통의 예식과 기도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 로마 가톨릭교회의 미사, 성무일도, 성사 거행 등의 중요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례력은 전례를 지내기 위해 마련한 교회 달력인데, 크게 3년을 주기로 가해, 나해, 다해로 구분합니다. 전례력은 예수님의 탄생, 공생활,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대림시기

를 시작으로 성탄시기, 연중시기, 사순과 부활시기 등이 있으며, 각 시기 중에 꼭 기념해야 할 대축일, 축일,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대해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결국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렵기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교회는 공적인 기도, 즉 전례를 통해 우리를 도와줍니다. 기도는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 할 때 더 힘이 세고 확실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끊임 없이 기도한다면(참조 루카 18,35-43), ‘청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주실 것이고, 얻을 것이며, 열릴 것’(참조 마태 7,7)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정답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한다’입니다. ⊕

왕림성당

윤정민 마틸다



1888년 7월에 설립된 왕림성당은 한국 교회에서 종현(현재의 명동, 1882년), 원산(1887년) 본당에 이어 세 번째 본당이자 한강 이남 경기도 최초의 본당입니다.

‘갯등이 왕림성당’으로 불렸던 왕림성당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신자들이 모여 살던 교우촌의 갯등이 공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형성 시기는 전해지지 않지만, 1839년 기해박해 당시 앵베르 주교가 이곳에 은신하며 전교했을

만큼 유서 깊은 곳입니다.

‘갯등이’는 천주교 박해 시절 신자들이 사제를 부르던 은어로, ‘갯을 쓴 등불’이라는 뜻과 함께 현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뫼텔 신부는 갯등이 지역을 포함한 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을 담당한 최초의 선교사로, 1883년부터 1885년까지 갯등이 공소를 방문하여 관공성사를 주었습니다. 1888년 7월 초대 주임 앙드레 야고보 신





부가 부임하여 성당을 설립하였고, 1889년에는 12칸 규모의 초가 성당을 지어 200명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02년에는 33칸 규모의 한옥 성당을 건축하였으며, 1971년에는 세 번째 성당을 벽돌 건물로 새롭게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성당은 1986년에 완공했습니다.

1902년에 봉헌된 한옥 사제관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으나 1982년 9월 원래 모습대로 복원되었습니다. 옛 사제관 앞 정원에는 1890년 4월 13일 선종한 초대 주임 안학교(야고보) 신부와 1914년 5월 26일 선종한 제5대 주임 곽원량(가롤로)

신부의 묘비가 있습니다. 이 본당은 부설 서당인 삼덕학교를 1907년에 설립하였으며, 1914년에는 4년제 신명의숙으로 개편하여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이후 1945년 광성국민학교로 발전하였으나 현재는 폐교되었고, 그 자리에 1983년 수원가톨릭대학교가 들어섰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여러 수도회가 밀집해 있습니다.

왕림성당은 유서 깊은 역사에 비해 소박하고 정갈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 천주교 수원교구 순례사적지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나의 출근길을 함께하시는 성모님

지은정 베로니카 AESTUS 성가단 단장

아침 6시 30분.

휴대폰 알람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흔들어 깨웁니다.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저는 그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렇듯 아침 출근길은 설렘보다는 분주함에 가깝습니다. 부랴부랴 씻고, 서둘러 아침을 챙겨 먹고 집을 나섭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무탈하기를.”

현관문을 나서며 혼잣말로 바람을 말해 봅니다. 아직 잠에서 다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 발걸음은 무겁고, 영혼 없이 걷는 제 모습은 흡사 ‘좀비’ 같기도 합니다. 직장으로 향하는 짧은 시간 동안도 제 머릿속은 이미 하루의 일정으로 복잡하기만

2025년 제9회 AESTUS 성가단 정기연주회



합니다. 만나야 할 환자들, 처리해야 할 업무들, 직원들과의 소통, 예상치 못한 변수들.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생각은 실타래처럼 얽혀만 갔습니다. 환자와 직원 그리고 원장님 사이에서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제 자리는 때로는 다리와 같았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없고,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 그래서 더욱 책임은 무거웠고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출근길은 평평한 길이 아니라 언덕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발목을 붙잡았고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 일 나겠네”
“나 너무 지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머릿속은 하얘지고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묵주기도를 권하셨습니다.

“나는 묵주기도를 할 때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그 말씀은 제 마음에 작은 의문의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라니...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 그 궁금증 하나로 묵주를 손에 쥐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날 이후 출근길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모님과 나란히 걷는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묵주 알 하나를 넘길 때마다 마음속 매듭 하나가 풀

어졌고, 성모송 한 번을 바칠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어느덧 일 년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걱정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는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염려도 조금씩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는 마음의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누군가 그 ‘평화’가 무엇이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밖에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편안함이지요”

세상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이라는 단어로만 설명 가능한 일들... 수십 년 동안 외워 온 성모송도 이제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

2026년 직장사목팀 견진성사 후



이다.”

익숙한 기도문이지만, 어느 날
은 위로가 되고 어느 날은 용기가
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또 다른
위안을 주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가’로 하는 기도입니다.

직장사목팀 AESTUS 성가대
활동은 세계 또 하나의 은총의 통
로입니다. 성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음표 위에 실어 보내는 기도
이며, 선율에 담아 올리는 찬미입
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선율 속에
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경
쾌한 선율에 마음이 춤을 춥니다. 그 순간
마다 성모님께서 우리 성가대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주고 계심을 느
깁니다.

오늘도 저는 묵주를 손에 쥐고 집을 나
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성모님, 오늘도 함께 출근해 주세요.”

그러면 성모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듯
합니다.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단다.” ⊕



2025년 서울시교우협의회 신앙대회 미사때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마태 13, 11)

김종호 야고보 주임신부_한남동 성당

어느 집단, 어느 그룹이나 ‘멤버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자격은 계속 갱신되어야 합니다. 직장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신자분들에게 들어보니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임이 존재하더군요. 어떤 곳은 들어가는 조건이 까다로워 소위 ‘엘리트’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바쁜 분들이라 아침을 함께 먹고 명사의 강의를 듣고 친교와 정보를 나누는 형식입니다. 어떤 골프클럽은 위원회 전원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멤버십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자부심과 연결됩니다. 하물며 강남이나 홍대에 있는 클럽에 들어갈 때도 입구에서 가드들이 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6개월 정도의 예비신자 기간만 보내면 무한한 멤버십을 부여합니다. 우리 천주교에 이렇게 냉담자가 많은 이유가 역설적으로 멤버십을 얻기가 너무 쉬워서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조건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고 엄청난 능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우선,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사는 상징의 집결체입니다. 기도문과 사제의 몸짓, 성물 모두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상징이며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는 거 자체가 고역이 될 겁니다. 결정적으로 제병 너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모든 예식이 형식이고 쇼 같겠지요.

두 번째로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신자들과 더불어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큰 능력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OTT나 유튜브를 보거나 집 밖으로 나와도 자기 취향에 맞는 곳만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당에 나와 친교를 나누고 봉사까지 한다면 그 능력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를 이해하는 능력과, 갈등 상황이나 불편함을 견디고 조율하는 능력은 성당 공동체

의 일원이 되는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신비를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서 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뭐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해의 지평과 인간적 지혜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입과 귀는 결코 열릴 수 없고 눈은 떠지지 않을 것입니다. ⊕



평화를 빕니다!

김도훈 라파엘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평안하신가요? 가만히 보니 저는 종종 평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보통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일의 설렘과 희망을 기억하며 잠을 청해야 하는데, 어느 날은 짜증과 분노로 한밤의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버리고 하고, 일상 중에도 어느 문제를 만나면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화에 머물 때가 많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롭고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분노하고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데도 온갖 힘을 주고 발악하며 삽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를 원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노를 유발하는 요소가 분명히 많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 세력의 이간질에 국민들은 서로 박 터지게 싸우고 있고, 많은 회사가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며 주가가 하늘을 치솟는다지만 재물신에 대한 식별 없는 숭배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앙의 가치를 무력하게 만들지요. 많은 형제가 주식과 코인이라는 도박판에 인생을 걸고 베팅을 걸면서 낭떠러지로 몰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 속에 청년들의 박탈감과 실제적 곤궁은

더해가니 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됩니다. 월드컵이라도 좀 잘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만, 온갖 국제적 망신살은 다 뺀친 월드컵이 되었고, 선을 넘는 조롱의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대한민국은 얼마나 후진적 국가 되어 갑니까? 이 땅에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함께 지성과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문제마다 분노하며 화를 쏟고 먹살 잡고 싸우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혹은 그러하면 나에게 이로운 것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힘이 들어간 경직된 심리적 상태로는 좋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삶과 운동은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힘을 빼야 역설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원리는 우리가 종종 기억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 중의 기본은 힘을 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상을 피하고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이치로 다

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보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곳에 힘을 빼야 힘이 분명 합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부둥켜안고 어찌지 못해 바들바들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가슴에 불구덩이를 안고 어찌지 못해 저마다 화병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있나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식별을 못해서, 억지로 힘을 주다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힘을 뺍시다.

하느님을 믿으시지요? 하느님께 문제를 의탁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도 될 만큼 넉넉한 분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곳에 힘을 주고서 나도 못 이기는 분노와 화를 공동체에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는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일상을 통해 하느님을 향하여, 하느님과 함께, 이 땅에 평안한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요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나 드라마 <참교육> 같은 콘텐츠가 화제가 되면서,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더 세게 처벌해야 한다”, “단호하게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걸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도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잘 압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그 누구도 감히 가볍게 말할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센 흐름 속에서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까요? 국내외 수많은 연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결론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어린 나이에 들어간 교정시설에서 아이들은 사회적 낙인을 찍힌 채 고립되곤 합니다. 결국 그 고립이 아이들을 다시 범죄로 내모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가 분노와 두려움으로 만든 제도가, 정작 우리가 그토록 막고 싶었던 결과를 낳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벌의 강도보다 ‘회복’과 ‘가능성’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이견 현실을 모르는 철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 안에 아직 채 자라지 못한,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을 사회가 먼저 포기하지는 말자는 호소입니다. 열네 살, 열다섯 살에 저지른 잘못이 한 인간의 남은 삶 전체를 통째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인생의 쓴 지혜처럼 주고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의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은 애초에 ‘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아닌 사람에게 ‘고쳐 쓴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인간을 기능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며,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존엄함은 그가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제가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매주 만나는 아이들이 바로 이 물음 앞에서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쳐 써야 할 물건’으로 태

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정의 붕괴와 방임, 폭력과 빈곤 속에서 홀로 길을 잃었던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그 아이들의 손을 잡으려는 건, 죄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은 죄보다 ‘그 아이라는 존재’가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자비는 함께 가야 한다고 교회 는 늘 가르쳐 왔습니다. 정의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라면, 자비는 그 책임을 다한 뒤에 다시 걸여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굴러 가야만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두 바퀴입니다.

모두가 엄벌을 외치며 한쪽으로 쏠릴 때,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내는 일은 분명 외롭고 인기 없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건, 바로 이곳이 우리 신앙이 서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

요당리 성지

윤정민 마틸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요당리 성지는 복음 전파 시점이 불분명하지만 신유박해(1801년)를 전후로 서울과 충청도 내포 지역의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정착하며 형성된 교우촌으로 전해집니다. 초기에는 양간공소라 불리며 갯등이 공소(현재의 왕림), 은이공소(현재의 양지)와 함께 신앙을 나누고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바닷길이 열렸던 요당리의 지

리적 특성은 충청도와 경기도 내륙, 서울을 잇는 선교의 통로가 되었으며, 박해를 피해 모인 신자들의 보금자리를 넘어 복음 전파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기해박해(1839년)와 병인박해(1866년)를 겪으며 수많은 신자들이 순교로 신앙을 증거한 한국 천주교회의 소중한 신앙의 터전입니다.





요당리 성지는 성 장주기(요셉 1803-1866) 와 2014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시복된 124복자 가운데 한 분인 장 토마스(1815-1866)의 출생지입니다. 또한 이곳 출신 순교자로는 하느님의 종 지 다 태오(1819-1869), 순교자 림 베드로, 조 명오(베드로), 홍원여(가블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주기 요셉 성인의 친인척이자 요당리 출신 순교자로 추정되는 장경언, 장치선, 장한여, 장요한, 방씨 등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한 전답 관리를 맡아 믿음을 증거한 성 민극가(스테파노, 1787~1840), 공소회장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끌며 복음 전파에 헌신한 성 정화경(안드레아, 1808~1840), 박해를 피해 이곳에

머물며 순교한 성 앵베르 뎀(라우렌시오 주교, 1796~1839), 그리고 그의 피신을 돕다 목숨을 바친 손경서(안드레아, 1799~1839)의 신앙과 희생이 깃든 곳입니다. 순례자들은 이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는 묘역에서 믿음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당리 성지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 성당과 넓은 잔디, 십자가의 길과 묵주기도의 길이 조화를 이루어 하느님 안에서 순례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성지입니다. 또한 일일 피정과 다양한 피정 프로그램을 통해 기도와 묵상, 영성 강의를 함께하며 영적인 심과 은총을 전하고 있습니다. ⊕

시간이 흐른다는 착각

하느님은 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강혁준 아우구스티노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가을이 되면 달력이 유난히 얇아 보입니다. 분명 얼마 전에 새 해 인사를 나눈 것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하루는 또 어떻습니까. 처리할 일이 밀려 있는 오후는 쏜살같이 지나가고, 끝나기만 기다리는 회의의 십 분은 한나절처럼 더디게 흐릅니다. 같은 하루인데, 시간은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것이 단지 기분 탓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정밀한 시계를 비행기에 싣고 하늘과 땅에서 시간을 재어 보았더니, 움직이는 쪽의 시간이 실제로 더 느리게 갔다고 합니다. 높은 산 위와 책상 아래의 시간마저 아주 미세하게 다르다고 하니, 세상에 똑같이 흐르는 시간은 어디에도 없는 셈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남보다 조금 천천히 나이 든다는 뜻이기도 한데, 아쉽게도 그 차이란 평생을 모아도 눈 한 번 깜빡할 정도라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의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것이, 순전히 제 게으른 마음 탓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

기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만이 있을 뿐이라고요.

소방사목을 하며 이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출동 현장의 한 장면이 마음에 박

혀, 몇 해가 지나도 그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잠결에 들리는 사이렌 소리에 깨고, 아무렇지 않은 사물 하나에도 그날로 끌려가십니다. 그분들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한순간이 현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요. 그 곁에 앉아 있다 보면, 사람을 가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합니다.

사목일기 41



장 아프게 하는 것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지 못한 시간이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흘러가지 못한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신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답합니다. 하느님은 지나간 어제에도, 오지 않은 내일에도 머무르지 않으시고, 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만남은 대개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착한 사마리아인은 길에 쓰러진 사람의 '지금'에 멈춰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니다. 지나치지 않고, 그 순간에 함께 있어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머무름 안에서, 쓰러진 이의 지난 상처도 내일의 두려움도 잠시 자리를 내어 줍니다. 사랑이 '지금'에 도착하면,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워크숍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워크숍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흘러가 버린 시간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붙잡지 못한 어제를 후회하거나 닥치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정작 하느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지금’을 놓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잠시 머물러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시간을 가장 잘 쓰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시듯, 우리도 누군가의 오늘에 곁을 내어 줄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이미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지나간 일을 붙들고 아파하고,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당신이 기다리시는 ‘지금’을
 자주 흘려보냈습니다.
 당신께서 머물러 계시는
 오늘 이 순간에
 저도 머물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흘러가던 제 시간이,
 당신 안에서 사랑이 되게 하소서.
 아멘. ⊕

멕시코 과달루페

심연선 소화데레사_성지순례 전문 여행 가이드



과달루페 성모님

프랑스의 루르드, 포르투갈의 파티마와 함께 3대 성모 발현지로 일컬어지는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는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거쳐 공인한 성모 발

현지 중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1531년 12월 9일, 당시 아즈텍의 농부였던 후안 디에고가 미사를 가던 중 멕시코시티 인근의 테페약 언덕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후안 디에고는 그 지역의 수마라 주교에게 찾아가서 성모님의 발현과 성모님께서 부탁하신 테페약 언덕에 성당을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주교는 믿지 않고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풀이 죽어 되돌아가던 후안 디에고에게 성모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테페약 정상에 가서 장미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추운 겨울의 바위틈 사이로 피어난 장미꽃을 꺾어 티마(16세기 멕시코 원주민들이 주로 착용하던 선인장섬유의 망토)에 싸서 성모님께 가져오니, 성모님은 주교에게 증거로 가져가 보이라고 하십니다.

후안 디에고는 주교관으로 달려가 망토를 펼쳐 장미꽃을 보이니 주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망토에 성모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멕시코 전역에 널리 퍼지고 성모님의 발현 후 90%에 이르는 멕시코 원주민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되며 인신공양을 하던 우상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멕시코는 2017년부터 시작한 아에로 맥

시코항공의 한국 직항 취항으로 더 이상 여행하기에 먼 중앙아메리카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만 치안에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기에 개인 관광보다는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을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험해서 개인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지역은 아닙니다. 낮 시간에 관광지를 다니는 것은 미국 대도시를 다니는 것 정도의 위험레벨(?)이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멕시코시티까지의 비행시간은 경유 없이 약 14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아무래도 긴 비행시간이 아쉬우니 주



과달루페 성모발현 조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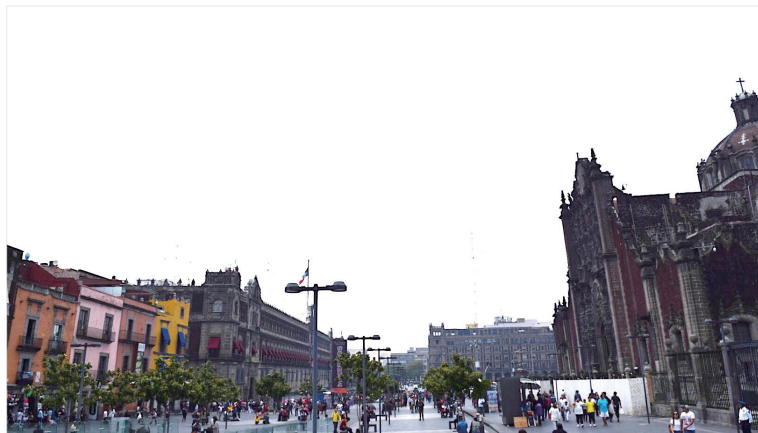
변 지역을 함께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멕시코 최대 휴양지인 칸쿤에 들러 카리브 해변에서 낭만적인 휴식을 하는 방법도 좋고 쿠바에 가서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아바나의 매력에 빠지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멀리 갈 수 있다면 남미국가 페루로 내려가서 로사 성녀의 성지인 리마를 순례하고 마추픽추를 곁들여 여행해도 아주 좋습니다. 아예로 멕시코 비행기를 이

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경유하는 방법도 있는데 미국을 가시게 된다면 쿠바여행은 다음기회로 생각하셔야합니다. (2021년부터 쿠바 여행자는 미국esta 비자가 거부됩니다). 미국을 경유하시게 된다면 스페인의 후니페로 세라 신부가 1769년부터 세운 21개의 미션 유적인 캘리포니아 미션 순례와 뉴 멕시코의 치마요 성지 순례를 추천합니다.



◀ 칸쿤 바닷가

▼ 언덕에서 바라본 과달루페성지



멕시코시티 대성당과 거리



과달루페 성당 내부



과달루페 성모님



과달루페 새성당과 옛성당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과달루페 성지까지는 자동차로 약 11키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지 입구에 들어서면 푸른색 옷자락을 연상시키는 지붕의 건물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그곳이 새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안에 들어서면 반짝이는 황금색의 벽면에 성모님의 형상이 새겨진 틸마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바로 밑 공간에는 평지에 좌우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인파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올라다보니, 참으로 신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푸른 옷을 입고 두 손을 모으고 계신 성모님은 지금이라도 입을 열어 내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새로 지은 성당 앞에는 누가 봐도 기울어져 있는 오래된 성당이 있습니다. 새 성당이 지어지기 전에 지어진 구 성당입니

다. 멕시코시티의 땅이 오래전에 호수를 매립해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반침하로 기울어진 건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웅장하게 지어진 종탑을 보며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테페약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해발 2000미터가 넘는 지역이기에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다 올라가니 도시가 제법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신앙심 깊은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웬지 모를 신비한 기운이 감돕니다.

멕시코를 가신다면 맛있는 멕시코 음식들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제 범 세계적인 푸드가 된 타코는 여러 곳에서 먹어봤지만 멕시코 본토 타코가 제일 맛있습니다. 체인점 같이 보이는 식당의 음식도 참 맛있습니다. 테킬라를 베이스로 한 시원한 칵테일 한잔도 추천합니다.

눈부신 멕시코의 태양 아래에서 성모님의 따뜻한 사랑에 흠뻑 젖어봅니다. ⊕

죽음을 보다보니 내 삶이 보인다

황광우 요셉 신부_고대안암병원 원목실장

병원은, 세상보다는 더 죽음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곳이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생각하며 생활한다. 그러나 병원은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이다. 병은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다보면, 일어나서 잠들기까지의 모든 일상이 그저 ‘살기 위해서’이다. 그러다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면, 일어나서 잠들기까지의 모든 일상이 ‘퇴원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이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경증부터 중증의 환자들, 단기입원환자부터 장기입원환자까지, 다양한 병과 증세로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말한다. “열심히 살다보니, 어느새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갈 그 일상은 병을 얻기 전의 일상과는 다른 일상이어야 한다. 병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이 아니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차리라고 주시는 은총의 시간이다. 정신없이 살면서 놓친 것들을 보게 해주는 여유와 기회의 시간이며, 하느님이 주

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을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이에게는 정신 없이 가족을 위해 힘쓰다가 오히려 가족과 소원해진 자신의 삶을 쳐다보는 시간이 될 것이며, 어떤 이는 죽음을 생각하게 하여,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삶의 마감을 준비하며 남은 가족들과 화해하도록 해 주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병원에서 나의 주된 업무는 환자들을 돌보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런 중에 병자성사와 고해성사를 주곤 한다. 병자성사는 환자분들에게 많은 안정과 위로가 되는 것을 지켜봤기에, 중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게 된다면 본당신부님께 꼭 받고 입원하시면 많은 위로가 될 것이다. 안되면 원목사제에게 청하면 될 것이다.

난 또 오랫동안 쉬었던 교우들이 고해성사를 청하면 무척 기쁘다. 성사를 끝내면서 나는 이들에게 꼭 들려주는 두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성경을 ‘하루 10분’

‘매일’ 3년간 읽으라는 권유이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읽고 난 3년 후에는 하느님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느님을 더 이해할수록 신앙도 보다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속은 아니지만 강력한 권유를 한다.

두 번째 들려주는 이야기는 주일미사의 활용법이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다가올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일미사를 활용하라는 권고이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았는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부족하였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미사를 참례하고, 영성체를 한 후에는 다가올 한 주간을 보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에 모신 성체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이러면 자신에게 있어 주일미사는 은총의 시간이며, 무척 기다려지는 행복한 시간이 될 지도 모른다.

오늘도 나는 병실들을 방문하며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해

드린다. 자신의 병으로 인해 문득 죽음을 생각하게 된 그들에게, 그들의 일상 복귀를 도우며, 그들의 건강을 되찾게 해 달라고 애원하며 기도드린다, 자신의 병과 싸우는 그들의 고통에 위로를 드린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그들에게 권유한다.

죽음을 경험했다면 삶의 소중함을 알기에, 이제부터는 소중한 삶을 보다 소중히 하는 방법으로 일상에 안전장치들을 해 놓으라! 매일 10분 성경 읽기와 주일에 참례하는 미사가 그 안전장치일 것이다.

매일 접하는 10분의 성경이야기는 점점 감동의 서사시가 될 것이고, 일용한 양식으로 내 안에서 영양분이 될 것이다. 그것은 어느 날 야훼 하느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꽃피워지고, 성체로 내 안에 오시는 사랑으로 알아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미사는 의무 참례 행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성체를 받아 피할 중요한 시간이기에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데이트가 되어가고 있을 것이다. 내 삶이 더욱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구정에 녹여내는, 양천구청 천주교우회를 소개합니다

이미숙 카타리나_양천구청 교우회

우리 양천구청 천주교우회는 양천구청에 근무하는 가톨릭 신자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고백하고, 그 가르침을 공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공동체로서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시편 125,6)”라는 주제 성구를 바탕으로 1988년 8월 발족했습니다.

초창기 교우회는 하느님의 사랑과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신자 수가 300명을 넘고 월례 미사 참여자가 30명을 초과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그 덕에 2010년에는 제8회 서울시교우협의회 신앙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선배님들의 열심한 그 전통은 현재에

도 계속되어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월례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사 집전 사제는 제18지구(양천)에서 인근 목동성당 홍용택 테오필로 신부님을 파견해 주시고 계시며, 아마 월례미사에 지구에서 사제를 파견해 주시는 곳은 우리 양천구청이 유일무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에는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 소속인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 관장님이신 이원석 베드로 신부님이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매월 두 분의 신부님을 모시고 20여 명의 교우가 은혜로운 미사를 드리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번은 목동성당 신부님이 로마 출장이어서 한빛복지관 신부님과 미사를 준비

했는데 제가 깜빡 성체 챙기는 것을 잊어 버렸습니다. 미사 시작 직전,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무척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이 원석 베드로 신부님께서 침착하게 혹시 미사주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번개처럼 김명중 시몬 신부님께서 신앙대회 때 상품으로 주신 미사주가 생각나 가져다드리니 신부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미사를 거행하셨고, 이 감격적인 미사는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굳게 믿고 있

습니다. 그 뒤로 매월 신부님들께서는 바쁜 우리를 감안하시어 일정 확인부터 교해성사까지 필요한 부분을 언제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이 글을 통해 진심으로 두 분 신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천교우회에는 ‘드림팀’이라는 11명의 젊은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드림팀은 월례미사를 준비하고, 각종 교우회 행사를 주관하며, 언제든지 하느

제8회 서울시교우협의회신앙대회 때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과
직장사목팀 사제단이 공동집전한 미사



님께서 부르시면 “예”라고 대답할 일꾼들입니다. 해설과 반주, 성가대, 총무와 부회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실지 제가 보기에든든하고 멋집니다.

그들의 이름은 임규현 안젤리카, 송정현 로셀리나, 박혜원 소화데레사, 허가영 안티아, 이용수 비오, 염찬근 보니파시오, 남윤홍 아우구스티노, 양영민 벤자민, 김석훈 스테파노, 이진선 노엘라, 추민균 로사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매년 11월 중 자체 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정 중 한 해 동안 일들을 돌이켜 보고 회개하며, 하느님을 향한 회심을 위해 순례를 시작하면 헤어질 때쯤은 하느님 은총 안에서 반짝반짝한 얼굴이 된 서로를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안고 각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2023년에는 강화 갑곶 성지를, 2024년에는 남양성모성지를 김명중 시몬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피정 안에서의 미사와 묵주기도가 지금 이 순간 다시 머리를 스칩니다. 피정을 함께해 주신 신부님께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가 막힌 인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또한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아마도 은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우회는 카카오톡 ‘브릿

2025년 구청장님과 이재경 지구장 신부님이 함께하신 미사





①



②



③



④

① 목주기도 드리는 모습 ② 2023년 자체 피정_강화도 갑곶성지 ③ 2024년 교우회 월례미사 ④ 2024년 자체피정_남양성모성지

지 기도방'을 통해 기도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미사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방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며 미사 일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로 사랑의 일치를 위해 공동체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실, 지금은 회원 수도 줄고, 미사 참여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회장으로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르지만, 하느님께서 양떼를 늘려 주시리라 믿으며 저 또한 미사와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느님을 바라보며 걷다 보

면 우리교우회 주제 성구처럼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회원 모두는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할 정직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더욱 겸손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공직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모범적인 공직자로, 직장사목팀과 교회 안에서는 충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마태 13, 29-30)

김종호 야고보 주임신부_한남동 성당

신앙인으로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솟아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왜 이 세상의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저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다가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저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요. 하느님은 왜 가만히 계시까요? 사실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향불에 멸망합니다. 악이 세상에 많아져 인간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하였고(창세 6, 5), 의인 단 열 명이 없었습니다(창세 18, 32). 하지만 그 멸

망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느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인류를 절멸시키지 않으셨고, 롯을 유향불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마태 13, 28).” 가라지가 바람에 날아와 심졌다거나 뿌리는 사람이 씨를 혼동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주해야 하는 대상은 원수이지 가라지가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면 밭으로 들어 가야 하고 얹혀있는 밀과 가라지를 분류하고 가라지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밀도 상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은 얹혀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분은 모호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가라지는 밀로 바뀔 수 없지만, 인간은 변화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 볼까요? 우리는 순수한 선도 순수한 악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존재입니다. 내 안에 악을 뽑아버리려다 선도 함께 뽑을 수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에 몰두하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는 중에 악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쫓는 경찰이 범죄자와 닮아가고, 악을 처단하는 영웅이 어느 순간 악의 방식에 져어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귀와 상대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생전에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집전한 미사 강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마귀가 세상에 현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마귀를 마

주함에 있어 너무 순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와 싸우셨는지 바라보고 오히려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악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엮은 책 ‘악마는 존재한다(디에고 마네티 엮음, 안소근 옮김, 가톨릭출판사)’를 참조하였으며 여러분도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

틀린그림 3곳을 찾은 후
사진을 찍어주세요.

9월 30일(화)까지
QR코드를 통해
사진을 보내주시면
20명을 추첨하여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휴대폰 뒷자리)

6731, 1120, 9832, 5370
1286, 9719, 5590, 4433
7912, 3549, 9892, 1982
3262, 6493, 8607, 9926
1274, 6027, 3353, 5854



2026년 가을 호부터 2027 세계 청년대회(WYD)까지,
공식 수호성인의 삶과 신앙을 '틀린 그림 찾기'로 만나보
겠습니다.

첫 번째 수호성인인 성 요한 바오로 2세(본명: 카롤 요
제프 보이티와, 1920~2005)는 폴란드 출신의 제264대
교황으로, 1984년 세계청년대회(WYD)를 창설했습니
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언어 능력을 갖추었으며 어린 시
절 가족을 잃고, 제2차 세계대전 중 강제 노역을 겪은 고
통 속에서도 비밀리에 사제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문화의 다양성
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종교 간 대화와 화해를 이
끌었습니다. 또한 동유럽 민주화와 공산주의 붕괴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재위 기간 동안 129개국을 방문해 평

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84년 첫 방한에서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위로하고, 바티칸 외의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서
울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비롯한 한국의 103위 성
인 시성식을 거행했습니다. 1989년에는 한반도의 화해
와 평화를 염원하며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방한은 한국 천주교회가 성장하는 큰 밑거름
이 되었고, 마침내 한국은 비가톨릭 국가 최초로 2027
세계청년대회(WYD)를 개최합니다.

2005년 선종 후 2014년에 성인 반열에 오른 성 요한 바
오로 2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희망
과 용기를 전했으며 오늘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한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 기억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직장공동체 파정

일상을 떠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사랑과 기쁨에 젖어들 수 있는 가톨릭직장인 파정을 실시합니다. 직장공동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 6,31)
- **일 시** 2026. 11. 14(토), 10:00~16:00
- **장 소** 노동사목회관 (보문동)
- **회 비** 20,000원
- **접수마감** 10.30(금) 17:00

직장사목팀 송년미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를 희망 안에서 준비하는 직장사목팀 송년미사를 봉헌합니다. 직장공동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12월 10일(목), 19:30
- **장 소** 문화관 2층 교스트홀
- **주 제** 직장사목팀 사제단

25년 송년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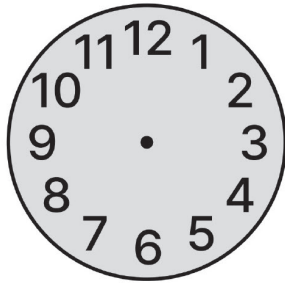
★문의 ☎ 02-727-2078 🗨 http://pf.kakao.com/_uBNxIX/chat

WYD SEOUL 2027

해외 순례자들을 위한 의사소통(AAC) 카드

오전
AM

오후
PM



기도합니다
(Let's pray/Vamos a rez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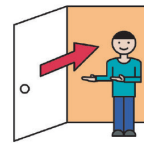
오늘
(Hoy)



내일
(Mañana)



나가다
(Go out/Salir)



들어오다
(Come back/Regresar)



네
(Yes/Si)



아니오
(No/No)



질문
(Question/Pregunta)



무선인터넷
(Wi-Fi)

✠
영|를 내-이라
내가-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조직위원회



가톨릭 직장인 www.catholicworkers.or.kr